

[신앙+]

## 착하게 살고 싶은 당신께… “적을 알고 나를 아는, 백전백승 신앙 살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많은 신자들이 주님을 닮은 선한 삶, 착하고 행복한 생활을 목표로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세상에 빛과 그림자가 존재하듯이 선(善)의 반대편에는 악(惡)이 존재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주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우리가 악에 대해 정확히 이해한다면 주님을 향한 여정에 두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새해를 맞아 지난해 우리나라에 번역본이 소개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저서 ‘악마는 존재한다’(가톨릭출판사)를 다시 펼쳐보며, 새해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보려 합니다.

### + 선한 사람은 분열하지 않습니다.

마귀를 의미하는 ‘devil’이라는 영어 단어는 그리스어로 ‘디아블로’인데, ‘디아’라는 말은 ‘둘’이라는 뜻입니다. 즉 ‘디아블로’는 ‘둘로 나눈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마귀는 분열시키고 사람들 사이에 분쟁을 일으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을 보면 마귀, 사탄이 자주 등장합니다. 성경에서는 악령에 사로잡혀 겪는 고통이 육체적 병고는 물론이고 정신적 질병과도 구별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마 능력을 제자들에게 부여하시어 그들을 복음 전파에 파견하셨습니다.

### + 선한 사람은 순진하지 않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악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교황님, 21세기에 악마에 대해 말하다니 옛날 사람이시군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악마는 존재합니다. 21세기에도 악마는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진해서는 안 됩니다.”

### + 선한 사람은 도움을 청합니다.

교회의 성인들의 삶도 천사와 악마의 존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녀 테레사는 “천사는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성인들은 악마에 굴복당하지 않았지만, 악마로 인한 시련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 + 선한 사람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사탄의 은밀한 간계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사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시키는 것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천사와 악마가 환상이나 비유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어 왔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하느님의 뜻에서 빗나가게 하려고 유혹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21세기에도 악마는 존재합니다. 우리는 복음에서 악마와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주 당신을 시험했던 마귀와 싸우셨고, 당신의 삶에서 유혹과 박해도 겪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귀의 유혹을 받고 마귀의 공격대상입니다. 악마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마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안전한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올해도 늘 악마로부터의 보호를 하느님께 겸손되이 청하며 주님의 기도 마지막 구절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를 바쳐야 합니다.